

# 佛敎建築計劃에 관한 研究

堂, 房, 樓, 閣, 庵子, 門, 石造物, 佛具

金正秀

延世大學校 産業大學院長

## 神閣 · 祖師堂 · 經堂 · 庵子

### (1) 神閣

한국은 古來로 山神, 龍神, 日月, 星宿 等等을 받들어 왔는데 佛敎가 들어오면서 인려한 土俗信仰이 佛敎로 轉向되어 天神은 釋帝桓因으로 檀君山皇은 獨聖 또는 山神으로, 日月·星宿은 藥師 左右補處인 日·月光보살과 藥師七佛의 化身인 七星神仰으로, 諸天·山天·龍神 등은 八閼會의 祭典으로 바뀌었다.<sup>(4)</sup> 이리하여 韓國內의 各寺刹에서는 山神閣, 七星閣 等等의 많은 神閣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神閣에는 各各 다음과 같은 神檀이 모셔져 있다.

神檀의 種類와 配置——神閣하나에 神檀이 하나인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神閣하나에 여러 神檀을 安置한 경우도 있다. 神檀의 構造는 簡易한 佛檀을 설치하고 小佛像을 安置하기도 하나 大部分의 實例를 보면 簡易한 佛檀을 설치하고 幀畵를 壁에 걸어서 佛像을 代身하는 것이 常例이다.

神閣의 種類에는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七星閣——熾盛光如來像과 左右補處 日光·月光 兩菩薩기타가 表示된 七星幀畵를 奉安한다.

山神閣(山王壇)(山靈閣)——閑寂山王大神 等 諸山神幀畵를 奉安함.

獨聖閣(獨聖殿, 天台閣)——獨修禪定 邦畔尊者를 爲始한 獨聖幀畵 또는 塑像, 安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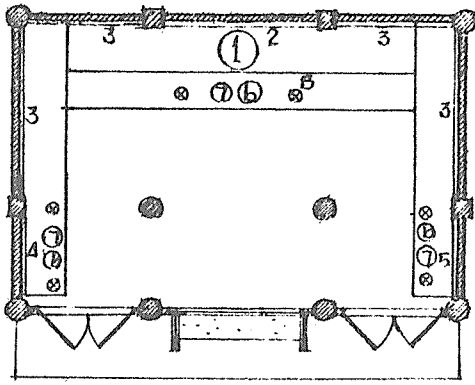
三聖閣——獨聖壇, 七星壇, 山神壇 等を 同時에 奉安한 神閣 (例 海印寺 三聖閣)

神閣의 建築構造——正面 1間(3.2 m), 側面 1間(2.9 m) 面積 10.7㎡ (3.4坪) 정도가 山神閣 等の 標準임을 第2.2表 統計로써 알 수 있으며 包作은 各種이지만 翼工집이 많으며 지붕은 대개 맞배집이다. 三聖閣은 平面이 正面 3間 側面 1間으로서 後面壁을 全部 祭壇으로 길게 一字로 配置하고 每間마다 神壇 幀畵를 後壁에 揭示하고 있다. 桐華寺의 七聖閣에는 七種의 七星幀畵가 붙은 完備한 것인데 보통은 1種의 幀畵 뿐인 경우가 많다.

### (2) 經堂(經藏)

藏經閣, 經庫, 藏閣, 法寶殿, 大藏經樓 등으로 불리우며, 海印寺 藏經閣은 八萬大藏經의 國寶 32號의 木刻 經版<sup>(5)</sup>을 收藏한 韓國最大의 特殊經庫이다. 大寂光殿 後面에 位置한 이 建物은 正面 15間 側面 2間 2棟 總 364 坪이며 包作이 없는 經庫다운 간소한 건물이다. 內部中央에 1例로 長方向의 內陳기둥이 있고, 室內에는 經版을 收藏할 수 있도록 선반이 5段으로 설치되어 있고 主위외벽에 通風窓이 설치되어 있다. 이 旧建物은 文化財管理局에서 現代式 空氣調和設備가 된 건물로 代置되고 있다.

梁山 通度寺의 藏經閣은 大雄殿 右側 前面에 위치하며 正面 3間 側面 2間 2翼工 맞배지붕이며 두루마리로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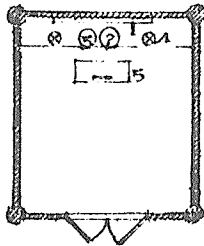
七星閣(서울奉元寺)

1. 山神幀畫
2. 耶畔尊者幀畫
3. 七星幀畫
4. 香爐
5. 茶器
6. 燭
7. 喜捨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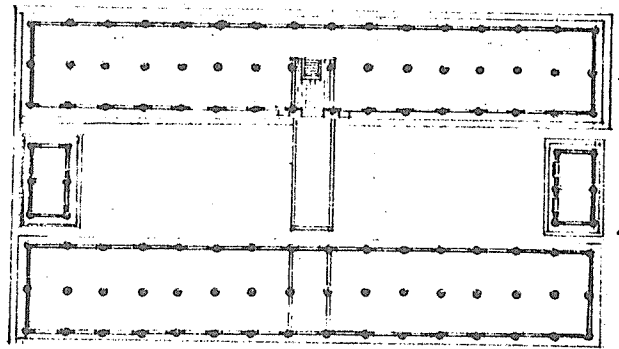
祖師殿内部

神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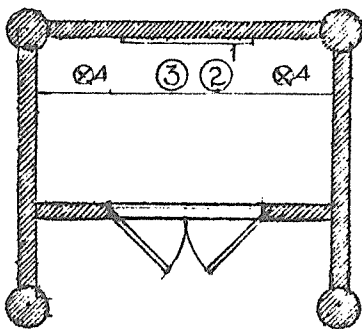


山神閣(桐峯寺)

1. 山神幀畫
2. 香爐
3. 茶器
4. 燭
5. 喜捨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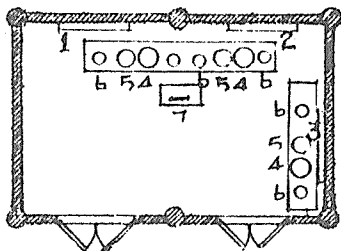


大藏絡閣平面図



天台閣(独聖閣) (桐峯寺)

1. 耶畔尊者幀畫
2. 香爐
3. 茶器
4. 燭



三聖閣(桐峯寺)

1. 山神幀畫
2. 耶畔尊者幀畫
3. 七星幀畫
4. 香爐
5. 茶器
6. 燭
7. 喜捨函



大藏經閣 内部

經庫(海印寺 大藏經閣)

經卷도 보관할 수 있게선반을 室内에 장만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室内에는 中央에 佛壇을 設置함이 慣例이다.

(3) 庵子

庵子라 함은 本寺 境内 주변에 있는 일종의 本寺 直屬 末寺이며 그 위치는 거리상으로 本寺에서 約 6 km. 以內에 散在한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庵子の 명칭은 庵, 院, 寺, 台庵의 각종 명칭이 있으며, 各 庵子の 建物の 數는 單一佛殿 또는 神閣 등에서 始作되어 大規模의 末寺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나 건축양식등이 일정하지 않다. 陝川 海印寺를 例로 그 所屬 庵子를 調査한 一賢表의 集計를 보면, 各 庵子の 合計建坪은 約 20坪 정도에서 近 300坪에 達하고 있다. 海印寺의 開山이 A. D. 802年으로 보아질 때 그 所屬 庵子の 創建年代를 調査한 同表에서, 大概 本寺가 건축된 然後에 數世紀 後부터 本寺刹의 地盤이 확고해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증설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祖師堂(祖師殿)

眞影堂, 國師殿, 永慕殿 等々の 명칭으로 불리우며 宗祖, 開山祖 또는 著名한 住持 等의 画像를 壁에 安置하고, 그 앞에 簡易한 祭壇을 마련한 殿閣이며 建物の 규모 불단 등은 前述한 神閣과 大同小異하되 다소 신각(神閣) 보다 큰 例도 많다. 室内 各壁에 여러 画像를 게시하는 것이 보통例이다.

海印寺(開山 A. D. 802)의 庵子一覽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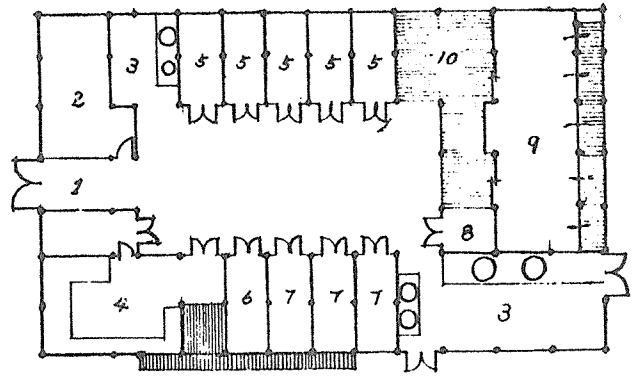
庵子名	창건년도	庵子內 佛殿名	합계평수
藥水庵	A. D. 1895	爐殿	267坪
國一庵	A. D. 1636	七星閣	106
白蓮庵	A. D. 1605	圓通殿 天台殿 山神閣 禪室(枕汝殿)	162
希朗台	A. D. 1797	三聖殿	21
知足庵	A. D. 1935	山神閣	75
極樂殿	A. D. 1488		122
龍樂殿 表表祠 僧房			45坪
引濟庵	A. D. 1945	極樂殿 表表祠 僧房	279
願堂庵	A. D. 1770	普光殿(비로자나불, 관세음보살(左), 지장보살(右)), 七星閣, 十王領本庵後佛領, 神象領	171
三仙庵	A. D. 1895	女僧房 七星閣	206
金仙庵	A. D. 1893		50
清涼庵	A. D. 1811	大雄殿(釋尊佛象) 像	50

禪堂·講堂·僧房·爐殿

禪堂, 講堂, 僧房 等은 主로 僧侶가 修道 伝道 및 日常生活을 하기 위한 곳이며 그 각각의 명칭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여 相互間을 구별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실제로 있어서도 同一建物內의 前記 三者가 混合되어 있는 때도 있고 個別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爐殿은 僧房의 일종으로서 住持 또는 各 法堂에 香火를 올리는 年

老스님이 거처하는 곳인 경우가 많다. 各 建物別 主로 常用되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

- 禪堂……一名 尋劍堂 解行堂
- 講堂……一名 無說殿 雨花樓 窮玄堂 涅槃堂
- 僧房……一名 寮舍体 寮舍
- 爐殿……一名 爐香閣 篆香閣 凝香閣 推雪堂 燒香閣 香爐殿



- 1. 현 관
- 2. 倉庫
- 3. 부엌
- 4. 찬방
- 5. 僧房
- 6. 房
- 7. 客室
- 8. 食品庫
- 9. 큰방
- 10. 마루

桐峯寺 尋劍堂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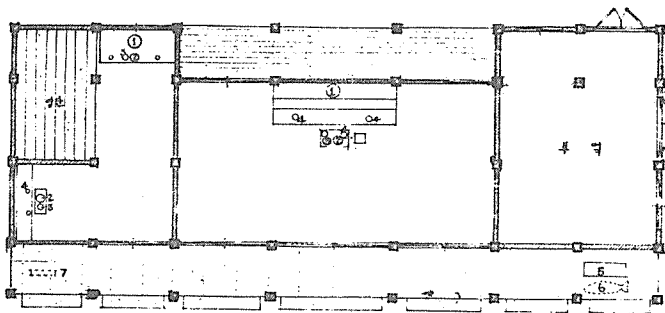


桐峯寺 禪堂 全景

禪堂

○ 建築構造

一般의으로 大雄殿 垜地보다 一段 낮은 前方 中庭에 面하여 左右에 배치되는 이들 建物は 中庭左便에 寮舍体로 한 例를 많이 볼 수 있으며 建물형태는 大部分의 佛寺가 山中에 위치하는 觀계로 안도감을 갖고 生活할 수 있도록 民家形式의 國學型 平面의 경우가 많으며 包作은 初翼工 二翼工 또는 굴도리집이며 지붕은 맞배 또는 八作이다. 中庭에 面한 房은 正面 4間 側面 2間 정도의 큰방으로 하



僧房(서울奉元寺)

僧房

고 中庭에 面하여 퇴간마루를 두고 있으며, 뒷채는 대개 單間의 작은방으로 하고 있다. 이들 室內는 온돌로 하고 天障壁은 壁紙로 되어 있다. 禪堂으로 쓰이는 큰방은 內部中央에 小佛壇을 설치하고 小佛像이 안치되며, 寮舍體의 큰방에도 간혹 小佛像이 安置된 例를 볼 수 있다. 寮舍體는 큰 炊事場이 있고 근처屋外에 石槽를 설치하여 炊事用水 使用에 便하게 하고 있다. 炊事場에는 대개 큰 가마솥이 여러개 걸려 있어서 寺刹 全體人員의 炊事를 할 수 있을 뿐아니라 祝祭 等 行事時의 多人員의 炊事準備에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 寮舍體의 큰방에서는 僧侶全員이 모여 食事를 하는데에 充分한 넓이가 필요하며, 뒷마루에는 食事時間을 알리기 위한 雲板을 걸어둔다.

爐殿은 대개 大雄殿 근처 혹은 其他 各佛殿中心에 가까이 설치하며 따라서 大雄殿과 같은 上段 垜地에 설치하기도 한다. 建物形式은 二次的 佛殿形式을 많이 본 따서 正面 3間 側面 2間 以上の 翼工 8作집으로 하되 退마루를 설치하고 실내는 온돌이며 벽천장은 벽지인 例가 많다. 부역에 設置한 佛壇은 庵王壇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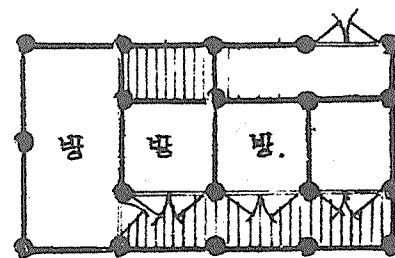
### 樓·鍾閣 鼓樓

#### (1) 樓

寺刹의 여러 문을 지나서 大雄殿과 一直線上에 놓이는 樓는 처음 寺刹을 찾는 사람에게 寺刹의 雄大함을 予告해 준다. 下段과 中庭, 높은 垜地中間에 위치하게 되므로 밖에서는 下層은 기둥만을 가진 피로티 形式의 二層으로 보이고 大雄殿에서 보면 단층건물로 보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樓의 下層 中央通路를 지나 階段을 오르면 寺刹 中庭을 통하여 大雄殿을 正面으로 쳐다보게 된다.

樓의 명칭은 각 사찰마다 특이한 名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一定하지 않으며(例 海印寺 九光樓, 通道寺 萬歲樓 等) 用途는 寺刹 佛法儀式이나 祝祭日에 設祭에 사용되고 食堂 또는 雨天時 集會 혹은 休息處로도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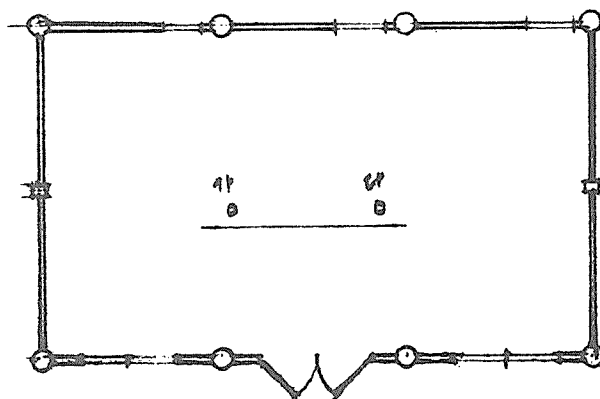
○建築構造: 원래 상하층이 벽이 없고 기둥만 있으며



爐殿平面圖(龍殊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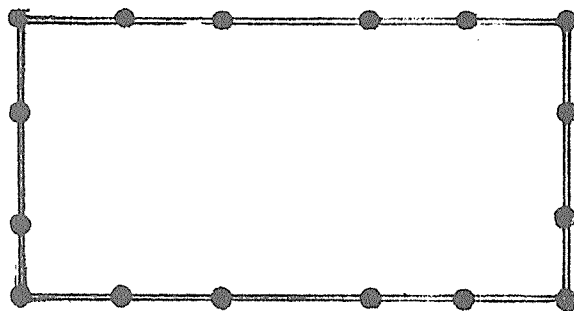
爐殿

1. 阿彌陀佛
2. 香 爐
3. 茶 器
4. 춧 대
5. 金 鼓
6. 木 魚
7. 雲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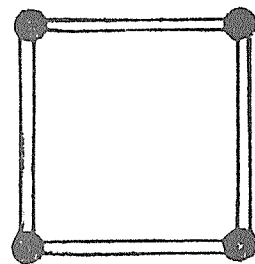


鳳停寺 華嚴講堂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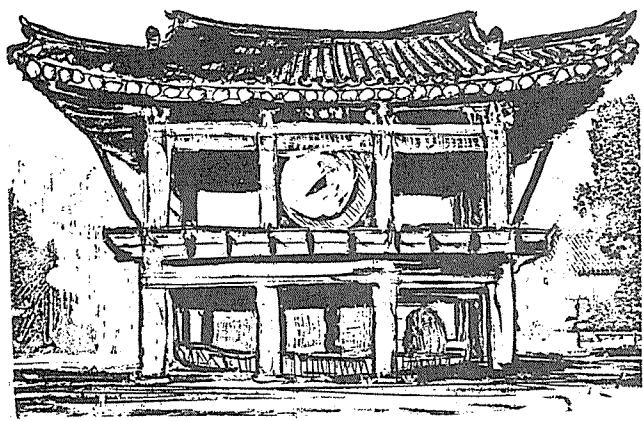
講堂



龍殊寺 弘濟樓 平面圖



龍殊寺 梵鍾閣 平面圖



梵鐘閣 外觀(通度寺)

樓 및 鐘閣 筆者實測

2층에는 주위에 난간만을 돌린 것이 原形이라 할 수 있으나, 寺刹에 따라서는 2층의 一部를 壁으로 치고 鼓樓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例 雙溪寺 八泳樓) 하층 중앙통로를 제외한 兩側을 壁을 치고 倉庫 등으로 사용한 경우(例 水原 龍殊寺 弘濟樓) 등이 있다. 正面 5間 側面 3間 2翼工 8作지붕의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2) 鐘閣(梵鐘閣) · 鼓樓

鐘閣·鼓樓는 前記한 바와같이 樓 2층 일부를 막고 사용한 것도 있지만 大部分의 例는, 樓에 接近한 위치에 獨立된 건물로 重層의 庇로티型 樓를 건축하고 鐘閣과 鼓樓를 同一 건물로 사용한 例가 많으며 이는 中國 定海縣 兩禪寺 A.D.1580의 例(第22圖 参照)와 같이 左右側에 各各 鐘閣 鼓樓를 건축하는 양식이 變잡을 피하여 2개를 합쳐 單一建物로 한 것으로 보이며 李朝時代 佛寺인 水原 龍殊寺는 大雄殿 左右에 各各 鐘閣과 鼓樓를 건축하였으나 이는 中國 大同의 下華嚴寺 등에서 그와 같은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 建築構造: 大體로 正面 側面各 3間(例 梵魚寺) 또는 2間(桐華寺 華嚴寺) 등으로 하되 正方形이 아닌 例도 있다. (例 觀菴寺 4間×2間) 二翼工 8作지붕 重層으로 하고 壁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창살을 돌리고 出入口와 内部에 간단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下層은 普通 梵鐘(引磬, 大鐘)을 달고 上層은 大鼓 木魚 雲板이 놓인다. 하층바닥은 자연지반면을 그냥 이용하던가 博을 깔고 2층은 장마루를 깐다. (第95圖 참조) 鐘閣과 樓를 各各 別途로 할 때에는 鐘閣은 단층 四方 1間 정도의 작은 건물로 한다. (例 水原 龍殊寺)

門과 其他建物

寺刹에는 일반적으로 約 1乃至 3種의 門이 있다. 그

例를 集計하면 (第2. 9表)와 같으며 寺刹에 따라 差異는 있지만 大體로 一柱門, 天王門, 不二門의 순서이며 때에 따라 순서가 바뀌어 一柱門, 不二門, 天王門으로 되어 있는 例도 볼 수 있다.

第2.9表 寺門의 種類

寺名	第 1 間	第 2 門	第 3 門
通度寺	一柱門	天王門	不二門
海印寺	一柱門	鳳凰門	解脫門
梵魚寺	一柱門	天王門	不二門
釋王寺	斷俗門	不二門	曹溪門
雙溪寺	一柱門	金剛門	天王門
桐華寺	一柱門	護法門	
法住寺	一柱門	解脫門	天王門
華嚴寺	一柱門	金剛門	天王門
寶林寺	解脫門	天王門	

(1) 一柱門(斷俗門)

寺刹과 外部 俗世界와의 경계를 表示하는 一柱門은 大體 左右에 기둥 하나씩으로 지탱하고 있으므로 一柱門이라 불리우며 寺刹의 寺名 扁額이 또는 門의 이름이 붙는다. 기둥간격은 최소 3.8m(例 孤雲寺) 최대 10.24m(例 海印寺)로서 平均 6m 内外이다. (第2.2表 統計表 参照) 一柱門은 外部에서의 첫인상을 주는 重要건물임으로 一般的으로 包作도 内外 3出目以上の 多包 8作 또는 맞배의 例가 많다.

(2) 天王門(護持門, 鳳凰門)

건축형식은 正面 3間 側面 2間的 例가 가장 많으며 면적은 35.9m<sup>2</sup> (10.9坪)이다. (第2.2表 参照) 包作은 二翼工 정도로 하고 지붕은 맞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平面을 보면 正面 3間中에서 中 1間을 通路로 하며 左右 各各 1間을 外部에 面한 部分은 全部 壁을 설치하고, 室内에 面한 部分은 창살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内部는 일반적으로 天障을 없애고 바닥은 흙 또는 博이며 内部에는 巨大한 木刻의 四大王佛像 左右 各各 二位가 다음과 같이 안치된다.

右 持國天王……손에 비파 樂器를 所持함.

右 增壽天王……손에 갈을 所持함.

左 廣目天王……如意珠와 竜

左 多聞天王……寶棒과 塔을 所持함.

以上の 佛像은 幀画로 代置한 例도 간혹 볼 수 있다.

(3) 不二門(解說門)

寺刹의 最終門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不二法門을 들어간다. 뜻에서 不二門이라 하며 一名 俗世界를 이탈하고 淸淨한 佛法道場으로 들어간다 하여 解脫門이라고도 한다.

建築構造는 一般的으로 天王門과 平面 및 構造가 大同小異하지만 一般적으로 天王門에 比하여 間數도 若干 많고 包作도 柱心包 多包 등으로 하여 加一層 精密한 경우를 많

이 볼 수 있다. (例 梵魚寺 不二門 内外 3 出目) 左右에는 各各 文殊菩薩의 獅子乘像 및 普賢菩薩의 象騎乘像, 童子像 등이 안치되며 때에 따라서는 이들 佛像을 幀화로 代置하기도 한다.

(4) 其他建物

○ 舍利堂 - 一名 納骨堂으로 통하며 一般 教人들의 遺骨을 보관하는 곳이다. 大部分의 寺刹은 舍利堂을 갖고있지 않으며 火葬場 近處의 寺刹에서는 유골을 一時 保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舍利堂을 필요로 한다. 위치 및 구조에 관한 慣例는 없고 一般불전에 준비하며 간소하게 건축하고, 室中央에서 佛壇을 장만하여 불상을 안치하되 양측 벽에는 여러 段의 선반을 만들어 부치고 遺骨箱을 올려 놓을 수 있게 한다.

石造物

佛寺에서 石造物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할 수 있다.

石塔, 石浮屠, 石燈 및 石床, 幢竿支柱, 石碑, 石橋, 石槽.

(1) 石塔 및 石浮屠

石塔은 印度의 都波에서 起源된 佛舍利塔이 오랜時日을 經過하는 사이에 그 形態가 變化한것이며, 따라서, 寺刹建築에 있어서는 가장 重要한것의 하나라할수 있다. 塔은 三国時代에 있어서는 大雄殿 前面 中庭에 大規模 1塔式으로, 木造, 博造 或은 石造로 九層塔을 設置한 例를 볼 수있었으나 그後 雙塔으로 變하였다고 高麗時代에는 無塔

寺刹로 變하였다고, 李朝時代에 다시 1塔式이 出顯하였을때는 그位置가 中門바깥으로 變化한 것을 볼수 있다.

現存 韓國의 石塔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韓國塔姿의 種類

- (가) 博塔型 (라) 木造塔型
- (나) 傳統型(新羅 釋迦塔型) (마) 特殊塔型
- (다) 百濟塔型

(가) 博塔型: 印度의 영향을 받은 前記한 中國 高層建物型塔中 四角形에 해당하며 芬皇寺塔 系統을 말한다. 但, 時日이 경과함에 따라 一般 傳統型에 가까워짐을 볼 수 있음.

(나) 傳統型(新羅 釋迦塔型): 韓國의 塔姿形式을 어떤 面에서는 代表한다고 할 수 있는 固有의 傳統的 形態의 塔姿로서 그 發生起源은 博塔을 配造로 模倣하려는 데서 생겼다고 할 수 있으며, 途中에 百濟形式이 若干 加味되었다고 보여진다. 高麗末期에는 木造塔의 영향까지 받게 된 것으로 본다.

(다) 百濟塔型: 木造塔의 영향을 받은 石造塔으로서 彌勒寺塔을 비롯하여 목조건축의 輕決한 모습을 나타낸 定林寺塔型으로 고려후기에는 傳統型에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다.

(라) 木造塔型: 日本木塔의 形態와 類似한 것으로서 후세의 法柱寺塔을 포함한 형태를 말하며 木造建築形態를 取한 模樣의 塔을 말한다.

(마) 特殊型: 塔 製作者의 創意性을 發揮하여 特殊形態를 取한 塔으로 대개 木造形式의 輕決한 形態를 取한 것이 많다.

石燈 一覽表

寺名位置	年 代	下 台 石			竿 柱 石	蓮 花 上台石	火 舍 石	屋 蓋 石	相 輪			高
		地 覆 石	下 台 下 石	蓮 花 下 台 石					宝 輪	宝 蓋	宝 珠	
彌勒寺(華山)	600~640	4角	4角	4角円	不明	8角有	8角4窓	8角	不明	不明	不明	3.5 m
佛 国 寺		4角	欠	8角円	8角	8角	8角4窓	8角	円柱		球	
開 仙 寺 址	868~891	8角	欠	円	円鼓腹形	8角角	8角8窓	16角	円	欠	球	6.36 m
華 嚴 寺	886~887	欠	8角	円	円鼓腹形	円	8角4窓	8角	円	円	球	
法 住 寺	800初	4角	欠	8角円	双 獅 子	8角円	8角4窓	8角	欠	欠	球	高2.97 m 地台石의 巾1.33 m
浮 石 寺				8角円	8角	8角円	8角4窓	8角	円	欠	欠	
法住寺四天王	800初	8角	8角	8角円	8角	8角円	8角4窓	8角	欠	欠	欠	3.9 m
宝 林 寺	868~870	4角	8角	8角円	8角	8角円	8角4窓	8角	円	8角	球	3.12 m
白丈庵(南原)	約 900	8角	16角	16角円	8角	8角円	8角4窓	8角	円	欠	球	高 5 m
遠 願 寺 址	約 850	4角	欠	円	8角	8角円	8角 想	8角	不明	不明	不明	巾1.49 m
平 均	600~900	4~8角		8角	8角	8角	8角	8角	円		球	

傳統型(新羅釋迦塔形)

義城古塔里 5層石塔	慶北 義城郡 金城面 塔里	新羅統一初期
高山寺址 3層石塔	慶北 月城 暗谷里	A. D. 686(A. D. 660~680)
感恩寺址 雙塔	慶北 月城 龍堂里	A. D. 682
羅原里 5層石塔	慶州 具谷面 羅原里	
九黃里 3層石塔	慶州 九黃里	A. D. 710
佛國寺 釋迦塔	慶州	A. D. 730
葛項寺址 東 3層石塔	金泉	A. D. 758
中原 塔平里 7層石塔	中原 塔平里	A. D. 785~789
南山里寺址 西 3層石塔	慶州 南山里	A. D. 790~810
山清 冷鶴里 3層石塔	現 景福宮內 移設	A. D. 890~910
美相寺 3層石塔	全北 南原郡 山內面 立石里	A. D. 826
僧燒谷寺址 3層石塔	慶州 博物館內	新羅末期
慶州 石窟庵 3層石塔	慶州	A. D. 865
開心寺址 5層石塔	醴泉郡 醴泉邑 南郡洞	A. D. 1010
淨鼎寺址 5層石塔	景福宮內	A. D. 1031

塔型

芬皇寺 模塔	慶州	A. D. 634
安東 新世洞 7層塔	安東 新世洞	新羅初
安東 造塔洞 5層塔	安東 造塔洞	新羅初
松林寺 5層塔	慶北 漆谷郡 東明面	新羅末
安東 東部洞 5層塔	安東 東部洞	新羅末
慶州 西街里 3層模塔	慶州 西街里	A. D. 790~810
月南寺 模塔		

特殊塔型

淨惠寺址 13層石塔	慶北 月城郡 江西面 玉山里	A. D. 660~680
慶州 佛國寺 多寶塔	慶州	A. D. 730
求禮 華嚴寺 四獅子塔	全南 求禮郡 馬山面 황전리	新羅末期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江原 平昌里 珍富面 東山里	高麗初期
敬天寺址 多層石塔	서울 星福宮內 景福	A. D. 1348
萬福寺址 5層石塔	全北 南原郡 南原邑 王享里	A. D. 14세기
圓覺寺址 多層石塔	서울 鐘路 달궁공원내	A. D. 1467

百濟塔型

扶餘 定林寺址 5層石塔	扶餘	A. D. 660以前
旆仁 5層石塔	忠南 舒川郡 旆仁面 城內里	고려초기
鷄籠山 塔	忠南	고려초기
彌勒寺址 塔	益山	A. D. 660頃

傳統型(高麗以後 木塔型 加味時代)

無量寺 5層石塔	忠南 扶餘郡 外山面 萬里	고려초기
普願寺址 5層石塔	忠南 瑞山郡 雲山面 龍賢里	고려초기
開城 南溪院寺址 7層石塔	開城市 덕암리 (現 서울景福宮)	A. D. 1296

木塔型

黃龍 9層塔(現 基礎문)	慶州	A. D. 553
廣通 普濟寺 7層塔	開城	高麗 太祖
法住寺 八相殿	忠北 보은군 내곡리	1624 重創

石浮屠는 그寺刹과 關係되는 歷代의 高僧들의 死後 그 舍利를 安置한 탑을 말하며, 石塔과 같은 形態이나 一般의 塔身이 球形에 가까우며, 寺刹 內外 各處에서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寺刹 境外 過히 멀지않은 위치에 集團으로 大量 안치한 例도 볼 수 있다.

(2) 石燈(光明台, 長燈) 및 石床

石燈은 또한 燈籠이라고도 하며 俗離山 法住寺 事跡에 「燃燈閣·石獅子光明台一座, 銅鉄光明台一座」라 하였으니 閣이라 불리우는 木造와 石造 銅 또는 鉄製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石燈의 위치가 대개 정원에 설치되는 것을 보아도 기름을 태워서 一般 정원屋外 照明用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天王敎에서 常夜燈이 祭壇 中央線에 크리스도彫像을 비쳐줌으로써 아직 예수께서 온 世上을 비쳐준다는 것을 나타냄과 한가지로, 佛國寺의 경우 石燈이 大雄殿의 須彌壇上的 釋迦如來佛像 中心線上 前面과 石塔사이의 中心位置에 놓여있어서 釋迦塔, 多寶塔 및 佛像을 다같이 비쳐줄수 있는 것을 보아도, 燈指因緣經을 비롯하여 佛敎經典內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真理를 비쳐줌으로서 衆生을 깨우치고 善한 길을 택하게 한다는 등의 여러 깊은 뜻을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石燈의 各部名稱은 別圖와 같다.<sup>(55)</sup>

韓國에서는 現在 全国各地에 約 254個의 石燈이 있다고 하며 그중에는 約 1割 정도의 陵墓石燈을 제외하면 大部分 佛寺에 安置된 것 들이다. 이들중 重要石燈에 對한 一賢表를 만들어 集計를 한 것은 別表와 같다. 이 集計는 서적 및 實際踏査 등을 通한 것이다.

以上の 集計에 따라 分類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石燈은 그 外觀上 竿柱石의 形態에 따라 一般型 丹鼓腹形雙獅子 其他의 特殊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2). 一般型은 大部分 8角形이 標準이며 下台石 및 屋蓋石部分만이 4角 8角 16角 등의 變化를 見할 수 있다.

石燈앞에는 石床이 놓이며(例 佛國寺 大雄殿 石燈) 石床은 큰祭를 차릴 때 大香爐를 놓고 焚香을 하는데 쓰인다. 石床은 一名奉爐台 或은 石으로 불리우며, 佛國寺의 경우 그 크기는 四方 13.5m角으로 하여 石燈에 부쳐서 設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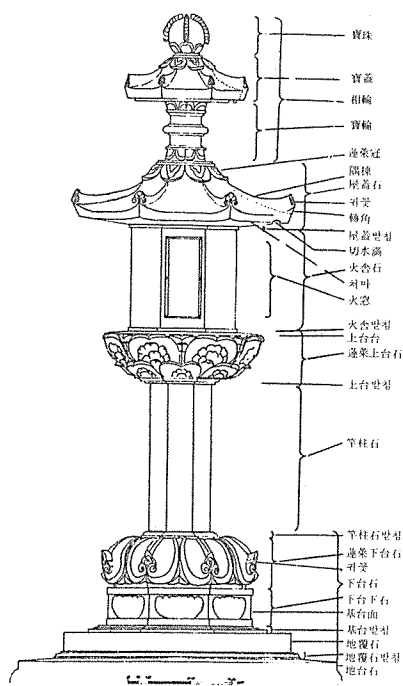
(3) 幢竿支柱

높이 3 及至 4 m의 石柱 한쌍을 支柱라 하고 中央에 設置하는 기둥을 幢竿이라 한다. 設置位置는 一定하지 않으나 대개 中庭 한쪽 또는 寺刹入口 등에 설치하여 4月 8日 釋尊 誕生日 등의 大行事 때에 掛佛 또는 기를 거는데 사용된다. 掛佛앞에는 祭壇을 屋外에 임시로 장만하고 여러인파가 모여 축제 행사를 한다.

甲寺는 鉄幢竿이고 羅州 東門 밖에 있는 石幢竿의 例도 있다.<sup>(61)</sup>

(4) 石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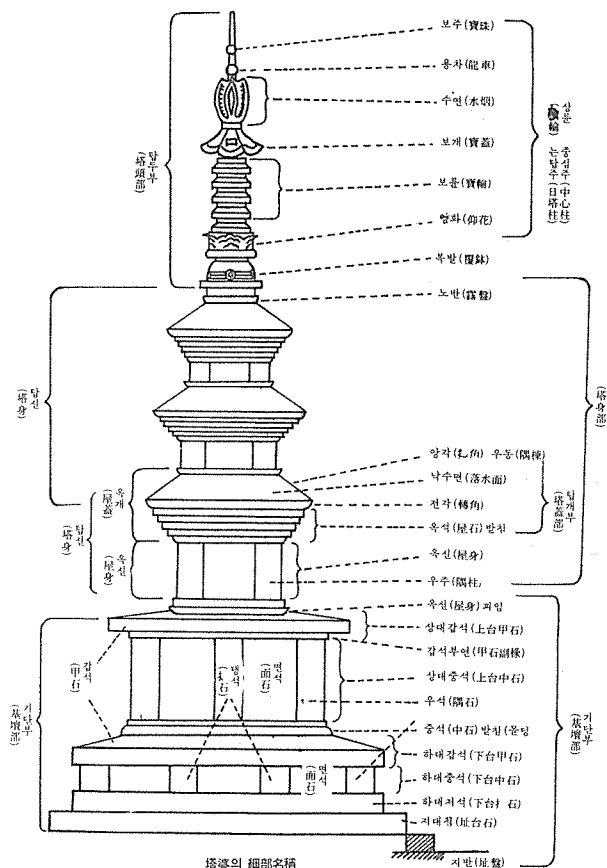
寺刹沿革 등이 記入된 石碑는 一柱門 近處에 設置하며 佛殿 石塔 宗祖 등의 史蹟 등이 設錄된 石碑는 各各 그 近處에 설치됨으로 그 위치는 一定하지 않다. 石碑는 臺를 들거북 등의 登위에 설치한 것이 많이 보여지며 중요한 石碑는 碑閣을 건축하여 그 内部에 보존한 例도 많이



宝林寺石燈

韓國石燈과 各部名稱

資料：鄭明勳，韓國石燈의 樣式考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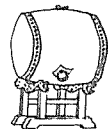


塔燈의 細部名稱



平鉢 (清風寺)

寺名	높이	직경
曹溪寺	154cm	89cm
土院寺	167cm	91cm
索谷寺	103cm	69cm



大鼓 (一乘寺)

① 梵鐘 (佛峯寺)



須彌壇 (佛國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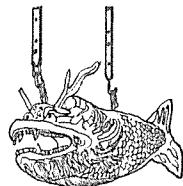
蓮華座 (海光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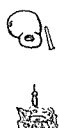
③ 金鼓 (通德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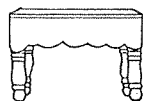
④ 雲板 (佛國寺)



⑤ 木魚 (佛國寺)



⑥ 木鐸 (潛門寺)



⑩ 前卓 (門覺寺)

寺名	길이	폭	높이
圓覺寺	139cm	75cm	85cm
법문사	155cm	46cm	110cm
정용사	100cm	61cm	103cm

前卓지수



⑨ 位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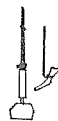
⑪ 香盆



⑫ 香爐의 지수



⑬ 火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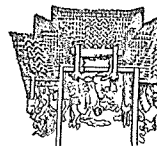
⑭ 寶金 (普濟寺)



⑮ 鐘錶 (眞光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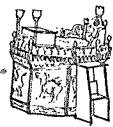
⑯ 五輪塔婆



⑲ 天蓋 (雙魚寺)



⑩ 香台



⑳ 出床 (通德寺)



㉑ 磬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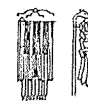
㉒ 木鉢



㉓ 佛桌 (佛國寺)



㉔ 佛桌 (佛國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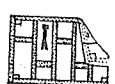
㉕ 幡



㉖ 前檠



㉗ 燈(坐)



㉘ 安陀會

佛具 其1 筆者 吳在

佛具 其2 筆者 吳在



있다. (例 通度寺 碑閣)

(5) 石橋

中國의 寺刹은 대개 寺刹入口에 面하여 大規模의 蓮池를 둔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修道者는 蓮꽃에 싸여서 極樂往生을 한다. 故 各種 佛像이 蓮華座임을 보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佛敎에서는 蓮꽃과 關係가 많음으로 蓮池를 두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蓮池의 비쳐진 더욱 장엄하게 보이는 佛寺를 바라보며 石橋를 건너 佛寺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의 마음에는, 俗世의 번뇌를 버리고 안정된 깨끗한 마음으로 寺刹을 방문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예로 보아 前述한 바와 같이 佛國寺 古今創記에도 蓮池, 金河玉泉이라 하였으니 紫霞橋 白雲橋 및 安養門 앞의 七寶橋 蓮華橋는 그 형태가 아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蓮池에 架設되었던 石橋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6) 石槽

돌을 파서 만든 石槽는 대개 寺刹 炊事場에 가까운 中庭에 놓이며 各種 음료수를 저장 공급하는데 쓰인다. 皇龍寺의 石槽는 現在 慶州 박물관에 있으며 한국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佛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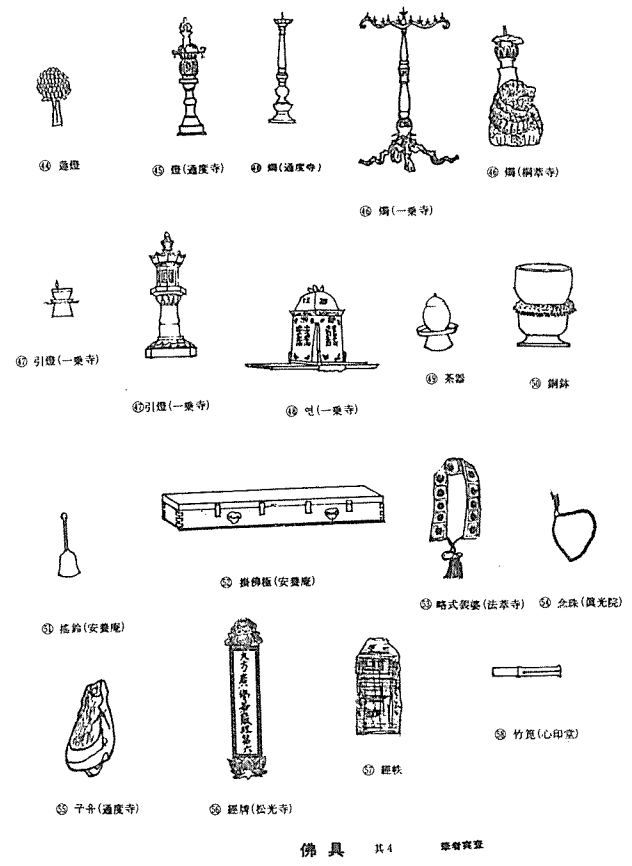
各 寺刹마다 各種의 佛具가 있는데 이를 用途別로 大別하여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樂器 및 信号用 佛具      教理象徵用 佛具  
佛壇用 佛具              建物裝飾用 佛具  
祈願 및 僧侶所持用 佛具      收藏用 佛具

各種 主要佛具의 各稱 및 用途는 다음 表와 같으며 그 外觀形態는 別圖와 같다. 但, 여기에 表示한 佛具들은 筆者 實査에 依한 것으로서 新舊불교종파에 이 조사한 것도 포함하였음을 追記한다.

佛具(各 番号는 圖面番號와 같음)

- ① 梵鐘: 절에서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나 때를 알리기 위하여 치는 큰종이다. 鯨鐘, 鈞鐘, 撞鐘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큰 것을 引磬이라 하고, 佛殿內에 놓이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을 半鐘이라 한다.
- ② 大鼓: 큰북, 악기의 일종이고 쇠가죽으로 만들어지며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친다.
- ③ 金鼓: 금속으로 만든 악기의 일종으로, 銅으로 만들어 속을 비게 하고 위에서 달아드리우고 치는 기구이며 錠라고도 한다.
- ④ 雲板: 선종에서 齋堂이나 부엌에 달고 대중에게 끼니 때를 알리기 위한 기구이며, 靑銅으로 된 판을 구름모양으로 만든 것
- ⑤ 木魚: 나무를 깎아 잉어모양을 만들어 속이 비게 파내어 불사에 쓰는 기구이며, 불전에서 염불·독경·배할 때나 공양할 때 대중을 모을 때 사용한다.  
木鐸: 木魚의 일종으로 둥글게 만든 木魚 우리나라에서는 목탁이라 한다.



佛具 其3. 筆者實査

佛具 其4. 筆者實査

- ⑦ 鏡鉢：法회에 쓰는 금속의 악기로 금속으로 만든 평평한 접시모양 같은 것 두 개로 되었고, 각각 중앙에 끈을 달아 좌우 손에 한 개씩 들고 서로 비벼쳐서 소리를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라’라고도 한다.
- ⑧ 경쇠(磬金)：쇠로 주발같이 만들어 복판에 구멍을 뚫고 자루를 달아 노루뿔 등으로 치. 범식을 행할 때에 부전이 쳐서 대중이 일어서고 앉는 것을 인도하는 불전의 기구.
- ⑨ 香貨：향을 담은 함으로 흔히 나무로 만들어 못칠한다.
- ⑩ 香爐：향을 피우는 그릇으로 흔히 금속이나 도자기로도 만들며 모양도 가지가지이다.
- ⑪ 香臺：향로를 올려놓는臺.
- ⑫ 火爐：숯불을 달아두는 그릇
- ⑬ 水盆：물을 담고 그 곳에 꽃이나 피석을 담아넣어 두는 그릇.
- ⑭ 法床：說法하는 중이 올라와 앉는 床
- ⑮ 絛机：경전을 넣어두는 상자로서 앞과 뒤에 각기 두 개의 짧은 다리를 맨 机. 그 작은 것은 經床으로도 代用.
- ⑯ 佛卓：부처를 모신 탁자.
- ⑰ 須彌壇：寺院의 本殿 室内 中央正面에 보이는 佛壇
- ⑱ 前卓：수미단 전면에 안치하는 단으로 설법시에도 사용된다.
- ⑲ 連華座：佛·菩薩이 앉혀져 있는 연화의 臺座. 華座·蓮華臺·華臺·蓮臺라고도 한다.
- ⑳ 位牌：죽은이의 이름을 써서 불단위에 안치하는 판목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대신에 종이로 접어서 만들기도 함.
- ㉑ 幡：繪幡, 幢幡이라고도 한다. 불·보살의 위덕을 表示하는 장엄도구인 깃발로 이것을 만들어 달고 복을 빌기도 한다.
- ㉒ 五輪塔姿：五解脱輪, 五輪이라고도 한다. 地·水·火·風·空·의 五大를 표시하는 석탑.
- ㉓ 天蓋：불전안에서 佛座 또는 높은 좌대를 덮는 장식물.
- ㉔ 直：스님들이 입는 옷이름으로 옛날의 偏祝과 裙子를 합하여 꿰맨 것.

- ㉕ 裙：승려의 허리에 둘러 입는 짧고 검은 옷이며 치마처럼 많은 주름이 있다.
- ㉖ 安陀会：3衣의 1. 內衣·中宿衣·裏衣·下衣. 5조가사라는 뜻이며 당나라 축전무후가 축소하여 禪僧들에게 준 후로 잠살위에 입게되었다. 지금의 낙자.
- ㉗ 五鉦：불교에서 쓰는 法具. 金剛杵로 요령의 자루를 하되 한끝을 오고로 한 것.
- ㉘ 五股杵：금강저의 五鉦로 된것을 말한다. 밀교에 대한 중요한 法具. 5고는 5智·5佛·5部를 표한 것.
- ㉙ 三：세갈퀴로 된 금강저
- ㉚ 金剛盤 또는 金剛盤子：金剛鈴과 金剛杵를 담은 도구이름. 쇠붙이로 만든 십장 모양의 盤으로 아래는 세발이 붙는다.
- ㉛ 拂塵：삼이나 짐승의 털을 묶어서 자루를 한 끝에 매어달은 기구. 주로 모기·파리따위를 쫓는데 쓰는 도구. ‘총채’라고도 한다.
- ㉜ 錫杖：승려가 짚는 지팡이의 上部는 주석·중부는 나무·하부는 뿔·牙를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六環杖이라고도 한다.
- ㉝ 座具：바구니가 앉을 때에 까는 방석.
- ㉞ 香象：象爐라고도 한다. 秘密灌須道場에서 쓰는 도구.
- ㉟ 三寶印：선종에서 쓰는 印章. 전자로 “佛法僧寶”라는 너자로 새긴 도장.
- ㊱ 佛：불상을 모시는 조그마한 집이며 세워만든 독(續)좌우에 여닫는 문이 있다. 주자(廚子)라고도 한다.
- ㊲ 幀画：불·보살·성현들의 초상을 그린 그림.
- ㊳ 後奇：불·보살상의 목뒤에 있는 광명.
- ㊴ 華鬘(화만)：꽃으로 만든 꽃다발. 실로 많은 꽃을 꿰거나 또는 묶어서 목이나 목에 장식하는 것.
- ㊵ 갈마금강(羯磨金剛)：3鉛杵를 一字로 교차한 것으로 밀교 특유의 法具.
- ㊶ 護摩壇：호막법을 수행하는 단
- ㊷ 보성계 ㊸ 복전함 ㊹ 화병 ㊺ 蓮燈 ㊻ 燈
- ㊼ 촛대 ㊽ 인동 ㊾ 연 ㊿ 茶器 ㊽1 銅鉢
- ㊽2 搖鈴 ㊽3 掛佛箱 ㊽4 약식가사 ㊽5 염주 ㊽6 구유
- ㊽7 經牌 ㊽8 經帙 ㊽9 竹篋

# 보호받는 자연만이 나의 호흡막게 한다

정정 4월호 본협임원 장종물이사 양력중(국세원 건축국)은  
오기 엿음을 밝힘.